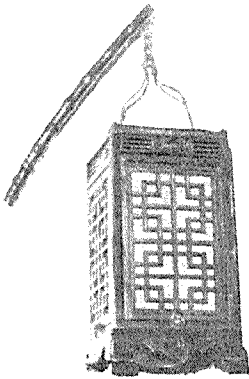


○新春時評○

# 石油産業의 體質強化



82년의 새해가 밝았다. 79년의 이란革命으로 촉발된 제 2차 石油危機는 4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第2次 石油危機에 따른 不況으로 우리 나라 經濟는 아직도 침체의 늪을 헤어나지 못한 채 混迷를 거듭하고 있다. 国内 精油業界도 第2次 石油危機의 후유증으로 심각한 危機를 맞고 있다. 지난 해 상반기중에 1천 여억원의 赤字를 기록한 최악의 사태는 지난 해 11월 29일의 国内油價의 소폭 인상으로 한숨을 돌리게 되었지만, 그 동안의 精油業界의 누적결손을 解消할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石油産業의 危機는 최근 국제원유가격의 안정과 수급의 完化로 일단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事態의 심각성이 본질적으로 해소된 것은 아니다.

石油産業은 역사적 轉換点에 처해 있는 것 같다. 高油價에 따른 石油수요의 감퇴와 代替에너지에로 이행되는 구조적인 변화속에서 石油産業은 이러한 環境變化에 적응할 수 있는 體質強化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우선 需要面에서 보더라도 国内石油需要는 급속히 감퇴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전망은 과거와 같은 需要의 伸張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시작된 第5次 經濟社会發展 5個年計劃에서 石油依存度를 80년의 60%에서 86년에는 49.8%까지 낮추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때, 앞으로 石油가 全体에너지供給의 大宗을 차지한다 해도 그 比重은 점차 감소되고 石油代替에너지와의 競争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견된다.

최근 세계의 原油供給은 일시적으로 完化상황을 보이고 있으나, 현재의 세계적인 過剩在庫는 금년 봄부터 여름까지 해소되어 需給均衡을 이룰 것이라는 展望이 지배적이다. 또 中長期 需給展望에 있어서도 石油를 둘러싼 정세가 계속 不安定할 가능성이 크며, 非産油開途國의 수요증대, OPEC諸國의 資源保存政策의 강화등을 고려한다면 原油供給은 浬박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또 産油國의 輕質油保存政策으로 우리나라 輸入原油의 重質化는 더욱 進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原油供給制約의 증대로 量的으로나 質的으로 原油선택의 幅은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精油業界의 경영기반의 약화이다. 우리나라 石油産業의 기업체질은 취약성을 안고 있는데다가 특히 第2次 石油危機를 거쳐 오늘에 이르는 동안 더욱 疲弊해졌다.

国内 精油 5社는 80년에 1천 9백 48억원의 赤字를 낸 데 이어 81年 상반기에도 1천여억원의 결손을 기록했다. 精油産業의 자기자본비율은 78년의 27.6%에서 79년에는 16.8%, 80년에는 4.4%로 떨어졌다. 80년의 경우, 제조업 전체의 자기 자본비율이 17%였던 것에 비하면 精油産業의 그것은 겨우 4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게다가 原油價格의 상승과 換率변동의 임팩트가 增大되고 있다. 급격한 原油價格의 상승으로 石油製品의 製造코스트에서 차지하는 原油代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현재 약 88%) 原油의 수입가격은 換率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企業 자체의 노력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換率의 변동에 따라 석유산업의 경영이 크게 左右되고 있다. 이와 같은 換率變動의 임팩트가 기업합리화의 幅을 제약하고 또 그러한 의욕을 크게 阻害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밖에 政策에 의한 제도적 요인이 石油産業의 경영을 압박하는 面도 看過할 수 없을 것 같다. 석유비축의 무에 따른 기금과 石油關係諸稅에 의한 막대한 稅부담 등이 그러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石油産業을 둘러싼 환경은 앞으로도 好轉되기 보다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 크다.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石油産業의 대책으로서는 첫째, 기업의 체질강화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精油産業은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基礎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高度의 公益성과 함께 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아온 결과 지나치게 정부의 존중질이 되었고, 또 自主적으로 환경변화에 対応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없지 않았다. 따라서 精油産業은 과거의 안이한 정부依存體質에서 탈피하여 기업의 자기경영 책임을 높여 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 취약한 經營기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아울러 原油도입, 운반, 생산, 유통등의 전반적인 石油製品 공급시스템의 합리화·효율화를 적

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政策的인 측면에서 경제활동이 점차 민간주도형 경제체제로 전환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民間活力的 존중과 행정개입의 점진적 축소 내지 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서 정부는 油價관리의 자율화를 밝힌 바 있지만 앞으로 石油行政의 목표는 가격을 억제하지만 말고 精油會社의 적정이익을 보장하는, 보다 신축성있는 운용이 기대된다. 코스트에 기초한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제품가격의 88%가 통제될 수 없는 외부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原油代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품가격을 무리하게 억제할 경우 결국 그 부담은 企業이 지게 된다. 原油코스트引下노력은 물론 필요하지만 일단 결정된 原油코스트는 適正하게 시장에 반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책의 기본방향으로서는 安定供給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이드·라인의 提示등 誘導의 조치로 전환하고 個別的인 개입은 점진적으로 축소·완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換리스크對策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최근 유전 스差損의 발생규모는 엄청난 규모에 달해 石油産業의 경영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換리스크對策의 중요성은 看過할 수가 없으며, 換率변동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換리스크對策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石油産業의 正常化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石油關係稅制의 조정과 精油會社들이 精油部門 이외의 기타 에너지事業에도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의 제공 등 일련의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政府의 石油政策도 점차 業界 自律化의 方向으로 가고 있으며, 石油産業에 대해서도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石油業界에 요구되는 것은 최고 경영자로부터 一線관때담당자에 이르기까지 과거 高度成長時代의 殘滓와 같은 경영감각을 청산하고, 自己經營책임의식하에 기업체질개선을 위해 倍前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 \*